

본당 소식

♣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연중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연중시기 전례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삼종기도” - “부활 삼종기도”에서 “삼종기도”로

♣ 2026년 재유럽 한인 사목자 회의

- 일시 : 6월8일(월) ~ 12일(금)

- 장소 : 프랑크푸르트 한인성당

- 잘 다녀오겠습니다.

♣ 모임 / 회의

- 청년 회의 : 6월 7일 (금일), 미사 후

- 사목 회의 : 6월 14일 (주일),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11.85€ • 교무금 50.00€

전례 성가

입당 : 164 (떡과 술의 형상에)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165 (주의 잔치)

163 (생명의 성체여)

파견 : 169 (사랑의 성사)

전례 봉사

이번 주일(6월 7일)	다음 주일(6월 14일)
제1독서 : 정지원 글라라	제1독서 : 허희숙 마리아
제2독서 : 정명용 미카엘	제2독서 : 김산영 올리아
복사 : 정이한 다윗 / 강윤이 스텔라	복사 : 정아인 레나 / 강윤아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6월 7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본기도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빛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 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1독서 (신명기 8,2-3.14ㄴ-16ㄱ)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3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4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15 그분은 불 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매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16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16-17)

형제 여러분, 16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부속가

21.	23.	24.
천사의빵	참된음식	전지전능
길손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자녀들의	주예수님	이세상에
참된음식	저희에게	죽을인생
개에게는	크신자비	저세상에
주지마라.	베푸소서.	들이시어,
22.		
이사악과	저희먹여	하늘시민
파스카양	기르시고	되게하고
선조들이	생명의땅	주님밥상
먹은만나	이끄시어	함께앉는
이성사의	영생행복	상속자로
예표로다.	보이소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교회를 굶어보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내주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2.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이 반목하던 시간을 마치고, 서로 한 민족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됨을 깨닫게 하시어, 이 땅에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3.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려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도록 이끌어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어, 사목자, 수도자, 평신도 들이 성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고, 성체 안에서 하나 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